

강원농협, 일상 회복 맞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휴장...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개장



1, 2 강원농협,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2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5월 강원도와 함께 2022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해 문을 닫았던 직거래장터는 이날 개장식과 함께 지역 농가에서 직접 기른 신선 채소와 과일, 쌀, 인삼류, 축산물, 두부, 떡, 화훼류 등을 고객에게 선보였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소포장 신선 농산물 증정 행사와 우유 소비 촉진, 전화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강원농협은 1년여간 부진했던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다스림 활성화 하고자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장터를 열 예정이다. 참여 농가에는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의 장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양질의 로컬푸드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 장터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4억2천만 원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강원농협은 매주 제철 농특산물 할인 판매와 이벤트로 지역농산물 판매를 보다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기부,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전통장·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또 전통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고, 강원도 강소농과 4H 청년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농특산물도 판매한다. 김용욱 본부장은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들을 부지런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 녹색 경영 —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 나눔 경영 —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원

— 청렴윤리 경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